

격 려 사

**종단 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방장 큰스님과 주지스님
이하 대덕 큰스님들과 중진스님 그리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이웃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도 종단을 대표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신속한 인명구**

조와 피해복구를 위해 우리 불교계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단 내외에 엄존하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낡은 틀을 과감히 벗고, ‘자성과 쇄신’의 기운을 통해 종단의 자주성과 교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 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묻어 있는 뿌리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민족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국가적 자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700년 동안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 불교계를 하나의 종교단체로 치부하면서 전통 문화를 특정 종교문화로 여겨 왔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래 끊임없이 제기
됐던 종교차별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동화사,
봉은사를 비롯해 사찰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사찰 땅밟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가 하면, 목사와 장로 등 개신교
인들이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에까지
난입해 불교를 비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2천만 명에 달하는 불교인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타 종교에 비해 무척이나 초라합니다. 이곳 통도사가 위치한 양산지역과 인근의 부산, 그리고 경남지역은 그 어느 곳 보다는 불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에서 우리 불교계가 국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이러한 우리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건성성불을 위한 수행정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생구제, 전법 교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오고 있는지, 민족전통 문화의 전승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결사는 근본을 바꾸는 의지이자, 노력이며 희생입니다.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막거나 예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지침이
아닙니다. 종단 지도부가 결의와 결단을
통해 결사를 선언했다면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로서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합시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쇄신합시다. 그리고 결사의 정신으로 쉼 없이 정진합시다.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오랜 전통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와 전통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가깝게는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와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나’ 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면
한국불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3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